

데스크 시국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 부국장

#“생맥주 한잔에 단돈 1000원.” 지난 3일 찾은 광주 시 서구 양동전통시장. 지난해에 이어 열린 ‘제2회 양동통맥(通脈)축제’(4월 19-5월 4일) 광고 문구가 솔깃했다. 통닭과 맥주를 연상시키는 축제 명칭 ‘통맥’은 전통시장과 통(通)하고 110여 년 역사의 맥(脈)을 잇자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나도’라는 뜻의 디토(Ditto)와 양동을 합성한 #디토Ditto 양동’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1000원 생맥주’는 축제의 킬러 콘텐츠이다. 맥주 판매부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 있었다. 치킨 반마리와 닭고치, 해물파전, 칠계튀김, 흥어무침, 오징어 등 안주류를 판매하는 ‘양동맛 이팅존’ 부스도 북적거렸다. 가격대는 4000원~1만원. 시장 내 건어물 코너에서는 MZ 세대들의 참여로 신명나는 ‘시장통 양동이 노래방’이 마련됐다.

맥주와 돼지불고기 축제로 활성화

#‘불금불파’. 강진군 병영면 ‘병영5일시장’에서 매주 금·토요일 열리는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4월 19-10월 26일)의 약어이다. 2회째인 올해 축제에는 ‘강진 불금불파 시즌2’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메인 음식은 병영을 대표하는 연탄돼지불고기(1인분 9000원). 동그란 탁자에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자 파절이를

위기의 전통시장과 ‘축지법’

없은 양념불고기와 상추, 기본 반찬이 제공됐다. 무대에서는 9살 트로트 신동과 병영 주민들의 가래치기 공연, 관광객 노래자랑 등이 잇따라 펼쳐졌다. 가래치기는 원추형 대바구니(가래)로 저수지에서 붓어 등을 잡는 병영면의 전통 어업유산이다. 더욱이 축제장에서는 병영만의 특별한 ‘하멜촌 맥주’를 맛볼 수 있었다. 강진군이 병영과 인연이 있는 헨드릭 하멜(1630-1692)의 고향인 네덜란드산 맥아와 지역특산품인 쌀귀리를 이용해 개발한 수제 맥주이다.

쇠락해가는 광주·전남 전통시장이 개성적인 축제를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통맥축제’는 생맥주와 양동시장 주 먹거리를, ‘불금불파’는 돼지불고기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결해 소비자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지난 주말 양동시장과 병영 5일시장을 돌아보며 ‘축제를 통한 지역살리는 법’, 일명 ‘축지법’에 관심이 높아졌다.

양동시장의 역사는 110여 년에 달한다. 1910년대 광주교 아래 백사장에서 열린던 5일장(매일 2·7일)이 뿌리이다. 1940년 광주신사(神社) 주변을 정리하면서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초기에는 ‘천정(泉井)시장’이라 불렀으나 196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양동(良洞)시장’으로 바뀌었다. 병영 5일시장 입구에는 ‘병영상인과 오일장’ 유래를 기록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1417년(조선 태종 17년)에 광산현(현 광주 광산구)에 있던 전라병영성이 현재 자리로 옮겨오면서 병영 사람들이 물자를 조달하는 상인으로 변모했다. 이후 ‘복에는 개성상인, 남에는 병영상인’이라 할 정도로 명성을 떨쳤다.

그렇지만 양동시장과 병영 5일시장 등 유서깊은 전통시장들도 유통시장 변화라는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에 손님들을 빼앗기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

어지고 있다. 전통시장의 쇠락은 고객·접점수 감소 등 각종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장당일 평균 고객수’는 2017년 4553.0명→2019년 5413.2명→2022년 4536.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1~2022년 점포수는 광주(4305→4053개), 전남(1만 2023→1만1481개) 모두 줄었다. 전국적으로 1년 사이 8874개소가 감소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조사’(전통시장 지역별 실적 및 전망)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광주·전남 전통시장의 ‘체감경기실사지수’(BSI)는 100 미만(43.9, 52.6)으로 ‘경기악화’ 상태이다.

전통시장 살리기 묘안 짜내야

역설적으로 현재 직면한 전통시장의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 우선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MZ세대와 같은 새로운 유통인구와 방문인구가 대형 마트 대신 시장을 지속적으로 찾도록 해야 한다. 이색 축제 개최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도 이러한 흐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 물품 배달서비스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다양한 묘안을 짜내야 할 것이다.

‘축지법’만으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마술을 부리기란 어렵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축제가 타 지역과 닮은 꼴이어서는 안된다. 온라인 쇼핑과 대형 마트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무엇보다 전통시장만의 ‘색깔’, 지역 특유의 향토성과 정감(情感)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세월 시민들과 함께 해온 전통시장이 유통업계의 여러 어려움을 돌파하고 21세기 일상 속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은펜칼럼

어머니의 얼굴 보는 날

선물 1위는 좋은 식사(25%)에 이어서 상품권(16%), 휴가(13%) 등이었고 꽃은 가장 끝 순위였다고 한다.

한국 어머니들이 바라는 가장 좋은 선물은 단연 현금이다. 라이나생명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순위가 현금(56%)이었고 친필 편지(18%), 효도 관광(14%), 가전제품(8%), 공연·영화 티켓(4%) 순이었다. 현금과 친필 편지의 차이는 38%나 된다.

반면에 SBS가 조사한 어머니날 최악의 선물은 책(55%), 케이크(15%)에 이어 꽃, 그리고 전화(9%)였다. 책 선물이 싫은 이유는 시력이 나빠져 책 읽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좀 더 솔직한 이유는 나이 들어도 배우며 살라는 은근한 압박으로 느껴져 거부감이 든다는 것이다. 책과 케이크의 40% 격차는 책보다 케이크가 훨씬 좋은 선물임을 보여준다. 최악의 선물 목록에 오른 전화는 어머니날 선물로는 기대 이하나 섭섭함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케이크나 꽃보다 자녀들의 목소리 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나타낸다.

현금이 최악의 선물 목록에 들지 않은 것은 현금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그렇다면 어머니날에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인터넷에는 이미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 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가 서울과 경기,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40세 미만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어머니날 적합한 금액은 20만원이었다. 이는 미국소매인협회가 조사한 172달러(약 23만원)와 단순 비교하면 얼추 비슷하다.

어머니날의 공휴일 지정은 오랜 논란거리인데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이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다행일 수도 있다. 세대 간의 불화나 갈등으로 왕래는커녕 어떤 연락도 없고 하루 종일 우두커니 공원에 앉아 소일하는 수많은 노인들에게는 어머니날은 일 년 중 가장 쓸쓸하고 가슴 아픈 날이다. 어머니날에 네팔처럼 어머니 얼굴을 뵈려 방문을 못해도 괜찮다. 낳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한다는 따뜻한 전화 한 통과 계좌 이체된 20만원은 이 특별한 날에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내년에는 전화 받을 부모님이 안 계시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부모님 얼굴을 뵈고 현금 봉투를 드린 후 발톱을 깎아드리는 것이다. 연로한 부모님의 허리는 뻣뻣하고 눈은 침침하며 손이 무뎠다. 손톱깎기로 자신의 두꺼워진 발톱을 깎기가 가장 근혹스러운 일 중의 하나라고 한다.

자녀들이 품안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으나 뒤늦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후회와 자책이 많다. 가장 가까워서 사랑과 함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부모이기도 하다. 어머니날에 받는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부모 노릇이 서툴러서 자녀를 이해 못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들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서로 마음을 열고 진심어린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감사와 용서, 웃음과 눈물, 화해와 감동이 있는 어머니날이 되었으면 한다.

내 아이의 얼굴과 목소리

도록 한다.

부모 교육을 진행하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자녀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내 아이가 오늘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완수했는지, 부모와 약속한 규칙들을 잘 지켰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을 쉽게 떠올린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많은 부모들이 교육이나 생활 습관 교정에 힘을 쏟지만 그전에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정서적 친밀감이다. 사실 부모님들이 힘을 쏟고 있는 대부분의 영역은 학교 선생님, 다양한 학원 선생님들이다. 이들은 전문가들이라 자녀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정서적 친밀감의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정서적 친밀함을 느낄 때 비로소 훈육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굿네이버스에서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아동 권리 지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느끼는 관계 만족도(초등 4학년 부모 85.2점, 중등 2학년 부모 82.4점)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초등 4학년 81.1점, 중등 2학년 76.6점)은 자녀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아동이 가족 문제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초 4 16.5점, 중 2 28.2점)도 학년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긍정적 또래 관계까지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고성희 외 1. 2009)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 친밀과 존경 요인은 학교생활 적응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지만 헌신과 엄격 요인은 의미 있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 편안하고 신뢰와 모범을 보이는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아침 우리 아이의 얼굴과 목소리가 어떠했는지 기억하는가? 아이가 밤새 약속된 게임 시간을 지켰는지, 오늘 하루 주어진 일과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에 앞서 밤사이 얼마나 예뻐졌는지, 잘 자고 일어난 표정인지, 혹은 피곤하거나 지친 목소리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자. 그리고 부모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로 자녀에게 관심 어린 질문을 통해 부모의 마음을 표현해 보자.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관심이자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의 시작이 되고 아이들이 세상에서 씩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이 될 것이다.

社說

상무시대 20년, ‘제2의 판교 벨리’ 되려면

광주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잡은 상무지구가 조성된 지 20년을 맞았다. 광주시청이 계림동 시대를 마감하고 상무지구로 옮겨 ‘상무시대’를 연 지 올해로 정확히 20년이 됐기 때문이다.

상무지구는 광주시청 이전으로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광주시청과 함께 전남도청도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원도심은 행정은 물론 경제의 중심이란 위상을 상무지구에 내주게 됐다.

상무지구가 행정과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데는 광주시청의 이전 효과가 가장 컸다. 신도시 조성 당시 광주시청을 중심으로 앞쪽 가운데에 상업 및 업무시설을 조성하고 양편으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배치한 것도 시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전 초기인 2004년 2681명이던 시정 정원은 20년만인 지난해 4197명으로 늘면서 상무지구 인구도 늘고 숙박 및 음식점 등도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광주의 주거 단지와 상업 시설

의 다핵화로 상무지구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광주시청 상무시대 20년을 맞아 상무지구가 제2의 도약을 마련할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가. 지정점은 광주시의 목표대로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2020년 지정한 도심융합특구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 광주시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상무지구 일대에 6140억 원을 투자해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주거·산업·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혁신창업 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긍정적인 점은 광주의 주력 산업을 인공지능(AI)과 미래모빌리티로 정했는데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2호선이 상무지구를 지나고 복합쇼핑몰 3종의 연계선상에 위치한 점도 테크노밸리 입지로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슬을 잘 꿰는 일이다. 주거·산업·문화 등 각각의 인프라를 융·복합하는 능력을 보여줄 때 상무지구가 제2의 판교 벨리로 거듭날 것이다.

5·18 공법단체 뼈 깎는 자정 힘써야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된 두 곳의 5·18 단체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공로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두 단체는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과 후원금 무단사용, 유행직권 급여 지급 등 여러 건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상자회는 허위로 직원 3명을 등재해 국비 3400여만 원 등 총40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변경되며 기존 수익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인출한 현금 2억2700여만 원을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 9개 사항의 비리를 저질렀다. 공로자회 또한 근무를 하지 않은 운전원 2명에게 800여만 원의 급여를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업무용차량 구매용 보조금 3200여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다시 되팔아 수입금을 자부담

통장에 입금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두 단체에 기관경고와 징계처리, 신분상 주의 조치를 요구하고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41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공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 5·18 단체가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아 5·18 정신 확산과 선양사업, 진상규명 등을 활발하게 펼쳐주기를 기대했던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치밀어 오른다.

열흘 뒤면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5·18 단체들은 뼈를 깎는 자정과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칫 두 5·18 단체의 비리행위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로 인해 빛이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추악한 비리행위로 추락해버린 단체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환골탈태(換骨轉胎)의 변화하는 자세를 광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無等鼓

“과반수 의석을 주고, 대통령을 만들어 준 지지층이 누구입니까? 국민의 손을 잡고 반걸음만 앞서 나가십시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2006년 새해에 자택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한 조언이다.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152석의 거대 여당이 돼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할 때다. DJ는 국민의사를 수렴하는 데 정부와 여당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자서전에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겸손하라 일렀다. 국민에게 배우고 국민과 같이 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회상했다. 그런

국민과 함께

코 성공할 수 없다. 민심보다 앞서 뛰거나, 뒤처져 낙오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뼈아픈 패배를 했다. 대선에 승리하고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매서운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인지 ‘불통’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고 9일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해나갈지는 본인의 몫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총선에 승리 위해 자만과 패배는 안된다. 의석수는 이겼지만 전국 득표율로만 따지면 5.4% 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한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선명성을 앞세워 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내리 3연패를 당하는 수도를 겪었다. DJ는 생전에 “어떤 행태로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민과 함께’라는 엄숙한 원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 정치는 국민을 무시하고 결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기고



권희영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실장

심리 상담을 진행하며 매 회기마다 확인하는 것은 바로 내담자의 얼굴과 목소리이다. 얼굴과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준다. 밝고 환한 미소와 부드럽지만 약간 높아진 톤의 목소리는 지난 한 주간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거나, 이 시간을 기대하며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다. 어둡고 힘이 없는 표정과 낮고 느린 목소리는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우울 혹은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얼굴과 목소리를 확인하여 얻은 나의 판단을 선부르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느 부분까지는 ‘가정’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부 인사와 함께 ‘관심 어린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매 회기 의식처럼 진행되는 이 과정은 내담자와 그의 삶에 대한 나의 관심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라포(Rapport,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